

##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체계 강화

### 민주당과 현안 해결위한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20개 사업 예산 확보 건의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 마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원도

정확위원회 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김현 미래사무부총장 등 당지도부가 참여했다.

전북도당에서는 안호영 도당위원장, 이춘석 의원, 이수혁 의원 등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2023년 세계 짬버리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사업, 새만금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가 추가 확보 등을 강조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등 전북경제 체질 개선 사업이 집중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중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생산된 종자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스마트 팜 혁신밸리' 사업의 조성 및 운영비 전액 국비반영 등을 건의했다.

전북의 우수한 국화자원을 발굴, 보존 정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수 있는 국가차원의 국화기관인 '전라유학진흥원' 전라권 3개 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립중인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반영도 전했다.

또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짬버리 성공개최 지원(세계짬버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기반이 부족한 전북도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기존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완전히 바꾸어나가는 동시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생명, 금융산업, 새만금 사업 등이 편견이나 왜곡없이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아름다운 나라 민생 쟁기기' 2018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 정책 협의회가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교육청,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기간 이달 15일까지 연장

### 사립유치원 참여율 저조 이유로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수를 늘리기 위해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1일 '제2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기간을 이달 1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천·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유치원 입학을 위해 줄서기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본래 등록 기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1일 개통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사립유치원들의 참여율이 전체 사립유치원의 30% 정도만 등록한 상태여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유치원들은 이달 1~6일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를 위한 우선 모집 접수를 받는다. 일반모집은 21일부터 26일까지며, 결과는 12월 4일 시스템을 통해 발표한다.

전북교육청 또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록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도내에서도 일반모집에서는 참여 유치

원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 참여율 편차가 커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부산교육청은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 조치와 함께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원장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개장 4주년

##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사례 '우뚝'

### 천변주차장서 기념행사... 유공상인 표창장 수여

갈수록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이 개장 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야시장은 4년 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이후 매주 1만7000여 명이 찾으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이자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사례로 손꼽혀왔다.

행사는 야시장 유공상인 4명에 대한 표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골와를 시장요제를 진행, 김범룡·박상철·한해진 등 초대가수들이 축하공연을 벌였다.

4년 전 조성된 이후 매주 1만7000여명 다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서 창업 위한 꿈 키우는 총 45개 매대 운영돼 연간 새 일자리 창출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남부시장 야시장이 열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1일 평균 7,500여명에서 많게는 9,000여명이 찾는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도 자리잡으면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대한민국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현재 야시장에서는 청년과 다문화가정,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창업을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총 45개 매대가 운영되고 있어 연간 100여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 노인일자

리 전담기관인 '효자시니어클럽'의 여르신 4~5명이 운영하는 비빔쌀밥 매대의 경우,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시니어클럽의 지원을 받아 시장에 점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요리대회 우승자 출신의 '오지닭' 매대 등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젊은 청년 요리사들에게는 시장 장사 테스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야시장 매대 식품도 고급화되는 시너지효과도 거두고 있다.

앞서,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2013년 9월 안전행정부 야시장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듬해인 2014년 10월 31일 문을 열었으며 개장 이후 인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새로운 야간 문화콘텐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현수 변영회장은 "시장 상인들과 야시장 매대 운영자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과 관광객이 둘러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장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남부시장 야시장이 방문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은 현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남부시장 이케이드 구간 내 십자로 주변 통로에서 열리고 있으며, 하절기(4월~9월)에는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간절기(3월, 10월)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각각 운영된다. /송효철 기자

### 매일 INDEX

5면 -전북 '한국형 스포츠클럽' 선구자 역할 특독... 도내 스포츠클럽 4곳 최우수

축! 전주매일 창간

**김제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지표영선**  
JIPYEONGSEON

www.jpssmall.com  
063-547-1707